

# 회고와 전망

이호관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 1. 회 고

## 2. 전 망

### 1. 회 고

1) 본인 자신이 1961년 9월 4일부터 1993년 10월 16일 현재의 국립전주박물관장으로 오기 전까지 33년간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재연구실 또 문화재연구소에 근무하면서 겪어 오고 지내 오는 동안 어려웠던 일과 기뻐던 일 그리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일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다.

33년간 우리들이 생각하는 문화재조사, 문화재발굴, 문화재관리,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나 전문적인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접할 때는 모든 것을 잊고 뿌듯한 기쁨과 가슴 벅찬 일을 느낄 때도 있었고, 또한 기구의 확장으로 희망찬 앞날을 기대하기도 하였던 때도 있었다.

본인이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 중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중에는 속속들이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서론적인 면으로 밖에 발표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이 글을 쓰면서 유려한 문장체로나 정확한 문법체로 전개시키는 것보다 서툴지만 있는 그대로 앞뒤가 바뀌어도 관계없이 기억나는 대로 쓸까한다. 또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할 때에 모아두고 기록하여 두었던 두터운 일기장 10여권을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모든 것을 태워버렸기 때문이다.

2) 1961년 9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내가 근무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의 기관명칭이 6번 바뀌었는데, 첫 번째 직장 명칭은 구황실사무총국, 그 다음이 구황실사무국이었고, 문화재관리국으로 발족하면서 문교부 문화재관리국이었던 1968년 7월부터 문교부에서 떨어져 나와 공보부와 합하면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으로 되었다가 1992년부터는 공보처와 문화부가 갈라지면서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이었던 1993년부터는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로 기관명이 바뀌는 신세를 겪어왔고, 30여년 간 한 기관이 소속되는 과정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어 본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 본다. 또 1961년 9월 4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화재관리국의 기관장들을 모신 것을 보면

첫째, 한당옥 국장을 비롯하여 열 다섯 분이 되며, 그 중에서 군 출신이 여섯 분이나 된다. 그 분들의 이름을 나열하여 보면

1. 한당옥(예비역육군부장)
2. 신능순(문교부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3. 문응국대령(1사단 부사단장)
4. 신능순(문교부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5. 정문순(청와대총무비서관, 8기생)
6. 하갑청(예비역 육군소장)
7. 허 련(부산시 부시장, 전남도지사 역임)
8. 김임용 국장
9. 이치순 국장
10. 김석영 국장
11. 유운소 국장
12. 기종설 국장(문화재보호협회 이사장,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역임)
13. 허만일 국장(문화부차관, 예술의 전당 사장 역임)
14. 정재훈 국장(현 국립중앙박물관 건설사무국장)
15. 정덕용 국장(현 문화체육부 중무실장)등 이었다.

또 이상과 같은 여러 기관장을 모시면서 1975년 4월에 연구실에서 문화재연구소로 기구 개편되며 발족한 문화재연구소의 기관장으로는 김정기(한림대학교 교수)소장을 비롯하여 동료였던 장경호 현 문화재연구소의 소장뿐이었으며 학예연구직의 증원과 변화도 대단하였다.

오랜동안 근무하면서 관리국 초창기에는 문화재에 학예연구관(당시 명칭은 학예연구관보) 1명과 덕수궁 미술관 학예연구관 1명, 문화재과에 학예연구사 1명과 덕수궁 미술관에 학예연구사보 1명으로 전부 4명에 불과하였는데 현재는 학예연구관 19명에 학예연구사 25명으로 전체 44명이나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고 본다. 그러나 당시 덕수궁미술관의 학예연구관으로 있던 임현진씨는 미술품 유출사건에 휘말려 혁명검찰에서 심문받다가 귀가하여 세상을 뜬 슬픈 사건도 있었다.

또 본인 역시 1975년 5월 30일자로 예능민속연구실장으로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으며

미술공예·담당관이 예능민속연구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의 인사발령기간이 1개월 여를 끌고 겨우 발령이 났으며 장관실에서 임명장을 받을 때 그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냉랭한 분위기였고 당시 이원경 장관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본인에게 들려준 말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 『참나무와 같이 휘어질 줄 모르고 부러지고 마는데 부러진 나무는 다시 쓸 수가 없으나 대나무는 꺾기하면서도 휘어질 줄을 알고 휘어졌다가도 다시 꺾기하여지는 때가 있으니 이호관 실장도 대나무를 모범 삼아 일시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참는 수가 제일 좋다고 한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문화재과에서 출발하여 예능 민속연구실장으로 올 때까지 본인이 책임지거나 또는 참가한 유적조사의 발굴을 보면

|              |   |                                      |
|--------------|---|--------------------------------------|
| 1965. 7. 15  | } | (慶北大學教漆谷郡仁同古墳發掘調查參加)                 |
| 1965. 8. 30  | } | 경주황오리 제 1, 3호, 황남리 제 151호 고분발굴조사참가   |
| 1971. 2. 20  | } | (慶州皇吾里 第 1, 3號, 皇南里 第 151號 古墳發掘調查參加) |
| 1971. 3. 15  | } | 망덕사지 제3차 발굴조사참가(望德寺址 第3次 發掘調查參加)     |
| 1971. 5. 7   | } | 소양강 수몰지구 선사유적발굴조사단장                  |
| 1971. 6. 5   | } | (昭陽江 水沒地區 先史遺蹟發掘調查團長)                |
| 1971. 7. 7   | } | 공주 무녕왕릉 제2차 발굴조사책임자                  |
| 1971. 7. 20  | } | (公州 武寧王陵 第2次 發掘調查責任者)                |
| 1971. 11. 13 | } | 암사리선사유적발굴 제2차조사참가                    |
| 1971. 12. 4  | } | (岩寺里先史遺蹟發掘 第2次調查參加)                  |
| 1972. 8. 1   | } | 팔당수몰지구양수리지석묘발굴조사단장                   |
| 1972. 8. 25  | } | (八堂水沒地區兩水里支石墓發掘調查團長)                 |
| 1972. 12. 9  | } | 경남거창둔마리고려벽화고분 학술조사참가                 |
| 1972. 12. 17 | } | (慶南居昌屯馬里高麗壁畫古墳學術調查參加)                |
| 1972. 5. 2   | } | 충남공주서용사지 제3차발굴조사참가                   |
| 1972. 5. 22  | } | (忠南公州西宄寺址 第3次發掘調查參加)                 |
| 1972. 9.     | } | 한국금속공예 3개년조사책임자                      |
| 1974. 12.    | } | (韓國金屬工藝 3個年調查責任者)                    |
| 1972. 10.    | } | 경주남산, 금오산, 마석산 불적조사책임자               |
| 1973. 3.     | } | (慶州南山, 金鰲山, 摩石山 佛蹟調查責任者)             |
| 1972. 6.     | } | 경주시 및 경주군 지표유적조사책임자                  |
| 1974. 11.    | } | (慶州市 및 慶州郡 地表遺蹟調查責任者)                |
| 1973. 11.    | } | 거창둔마리회곽묘발굴조사단장(居昌屯馬里灰槨墓發掘調查團長)       |
| 1973. 4. 30  | } | 대구역지석묘발굴조사참가(大邱驛支石墓發掘調查參加)           |
| 1973. 5. 6   | } |                                      |
| 1973. 11. 13 | } | 안동수몰지구 제1차유적발굴조사단장                   |
| 1973. 12. 20 | } | (安東水沒地區 第1次遺蹟發掘調查團長)                 |
| 1974. 2. 14  | } | 경남창원의동성산구릉 제1, 2차발굴조사단장              |
| 1974. 5. 15  | } | (慶南昌原外洞城山具塚 第1, 2次發掘調查團長)            |
| 1974. 10. 24 | } | 안동수몰지구 제2차발굴조사단장                     |
| 1974. 11. 21 | } | (安東水沒地區 第2次發掘調查團長)                   |
| 1974. 12. 21 | } | 잠실지구유적지 제1차합동발굴조사참가                  |
| 1975. 1. 11  | } | (蠶室地區遺蹟址 第1次合同發掘調查參加)                |
| 1975. 8. 19  | } | 잠실지구유적지 제2차합동발굴조사참가                  |
| 1975. 9. 13  | } | (蠶室地區遺蹟址 第2次合同發掘調查參加)                |
| 1976. 6. 24  | } | 잠실지구유적지(방이동) 제3차합동발굴조사참가             |
| 1976. 7. 21  | } | (蠶室地區遺蹟址(芳夷洞) 第3次合同發掘調查參加)           |
| 1975. 5.     | } | 대구북현동석곽묘 제1, 2차발굴조사책임자               |
| 1975. 6.     | } | (大邱伏賢洞石槨墓 第1, 2次發掘調查責任者)             |
| 1975. 8. 11  | } | 영산강장성수몰지구지석묘발굴조사                     |

|              |   |   |
|--------------|---|---|
| 1975. 6. 12  | } | (榮山江長城水沒地區支石墓發掘調査)                      |
| 1975. 11. 15 |   | 안동수몰지구 제3차유적발굴조사단장                      |
| 1975. 12. 16 | } | (安東水沒地區 第3次遺蹟發掘調査團長)                    |
| 1977. 12. 1  |   | 대청수몰지구단금생사지 및 지석묘발굴조사책임자                |
| 1977. 12. 27 | } | (大清水沒地區 단金生寺址 및 支石墓發掘調査責任者)             |
| 1976. 10.    |   | 신안해저유물발굴조사부장(1차~4차, 7차~9차)              |
| 1983. 11.    | } | (新安海底遺物發掘調査部長(1次~4次, 7次~9次))            |
| 1983. 12. 10 |   | 전남완도군락산면어두리해저고려청자발굴조사부장                 |
| 1983. 12. 30 |   | (全南莞島郡樂山面魚頭里海底高麗靑磁發掘調査部長)               |
| 1988. 10.    |   | 경주남산유적조사책임자(慶州南山遺蹟調査責任者)                |
| 1993. 4.     |   |   |
| 1968.7. 20   |   | 68년도 Mexico Olympic 세계문화재전시한국문화재전시책임자   |
| 1968. 12. 30 |   | (68年度 Mexico Olympic 世界文化財展示韓國文化財展示責任者) |

와 같은데, 예능민속실장으로 발령받은 1975년 5월 30일 이후의 발굴조사에서는 멀어졌다.

그러나 영산강 장성 수몰지구 발굴이나 잠실지구 방이동 발굴, 그리고 그 유명한 신안해저유물 발굴과 완도 어두리 해저 고려청자 발굴부장으로서의 책임과 열의를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다 하였던 발굴이었다.

반면에 발굴현장에서의 보도자료 작성에 일부 관련자들의 자료의 내용을 삭제 또는 저희들의 뜻대로 변조하는 따위의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3) 본인이 처음으로 발굴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경험하고 실천해 옮기게끔 교훈을 준 현장은 경북대의 인동발굴에 당시 1분과 위원장이었던 이홍직 박사와 같이 참석하여 지도를 받던 일이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 것은 1965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 까지 경주 황오리·황남리 적석목곽분을 삼복 더위에 발굴할 때이다.

이 발굴이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처음이었고 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잡음과 압력이 있었고 또한 항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본인은 무척이나 시달림을 받았고 또 이런 소문으로 입장을 해명하는데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고, 감사권이 없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 K박사와 전문위원이었던 J씨가 경주로 내려와 서류감사 등을 행한 적도 있고 이분들이 돌아가 전후 사정을 해명함으로써 우리들 발굴을 끝끝내 반대하였던 문화재위원인 H박사가 오해였다는 사과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이때 발굴에 참가한 김원용박사의 서울대학 팀, 진홍섭박사의 이화여대 팀. 김영하박사의 경북대 팀이었으며 이것이 종합발굴단 조직의 시초가 아니었나 한다.

그런데, 이로 인해 본인은 1965년 9월 3일자로 덕수궁 미술관으로 발령을 받아 1969년 9월 10일 관리국으로 원대복귀할 때까지 만 4년간 덕수궁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어려운 입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특히, 1969년 5월부터 7월말까지 덕수궁미술관이 없어지면서 국립박물관으로 병합하여질 때 2만여점의 유물을 인계하면서 정들었던 유물에 대한 것을 남의 손에 넘길 때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또한 5월부터 8월말까지 유물을 인계하면서 당하였던 섭섭함은 아마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4) 오랜 근무기간 중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무령왕릉발굴, 팔당수물지구발굴조사, 성산패총발굴조사, 경주남산조사, 장성댐수물지구발굴조사, 문화재관리국 발족당시의 사무인수인계와 문화재보호법 제정, 문화재 재지정,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새로 임명되는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관계, 멕시코 올림픽 문화재전시 참가, 학예직에 있어서의 진급관계와 12.12사건 이후 정풍바람에 휘말렸던 일, 유적발굴에 대한 증인으로 해명하던 일, 일본에서의 문화재조사 및 북한문화재 자료 수집시에 일어난 일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무령왕릉 발굴은 1971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공주 송산리 소재 무령왕릉발굴에서 우리 발굴단은 한없이 긴장하면서도 기쁨에 넘쳤다. 또 나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 발굴에 참석하였으나 본인이 책임자가 되어 백제의 무령왕릉을 발굴하게 되었다는 것은 일생 일대의 영광이라 본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연구실이 1969년 발족한 이래 처음 있는 경사가 아니었던가 한다.

지금까지의 백제 관계사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의존하여 문헌사적인 면에만 중점을 두고 고고학이나 미술사 분야에서는 짐작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무령왕릉을 발굴하게 됨으로 인해 백제사를 재조명하게 되었고 백제의 문물제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삼국사기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를 증명하였다.

또 당시 백제인들의 경우가 밝은 정확성, 문헌적 기록 등이 정확한 왕조였음을 증명케 하였고, 묘제의 축조기술, 장제법, 공예면 등이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음도 증명이 되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제품만 3kg에 달하고 하나 하나의 세공기술은 삼국중 가장 우수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이 발굴로 인하여 백제사를 증명하는 유적조사, 유적발굴 등이 활발하여졌고 고대사 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한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그 유명한 미륵사지발굴까지도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한 발굴이나 세상에 알려진 내용과는 달라 본인이 조선일보사 간행 『한국현대사 119대사건 모음집』의 196쪽과 197쪽에 해명한 바 있으나 그 속에서도 더 자세하게는 언급치 않았다. 다만, 발굴현장에 참관하였던 몇몇 인사들과 초청치도 않았던 방문객들의 추태와 월권적 행동 그리고 그렇게도 신문지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하는 태도에 측은한 감마저 들고 그 때 경솔하게 움직였던 대학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A씨, B씨, K씨 등은 아직도 대가인 척 행동하고 있다.

특히, 무령왕릉 2차 발굴에서 1차 발굴에 참여하였던 문화재 연구실의 미술공예담당 관실의직원이었던 손병헌(현 성균관대 교수), 조유전(현 국립민속박물관장), 지건일(현 국립경주박물관장)씨 등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국립박물관 직원들과 공주대 교수 A씨, 공주교육대학교수 B씨,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당시의 공주박물관 관장 K씨 등과 1차 발굴의 조사단장이었던 본인 한 명만 참가케 하여 2차 발굴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되고, 연구비 지불에서도 우리들 직원 셋을 배제한 일들, 또 무령왕릉보고서 작성에서의 본인이 제출한 원고 50매 분량의 내용이 단 몇 줄로 축락되어 게재된 것은 지금까지도 섭섭함을 갖고 있다. 팔당수물지구 조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해방이후 두 번째로 종합발굴조사단을 구성한 대대적인 조치였다. 이 발굴의 비용을 한국전력측이 담당하였고 문화재관리국 측은 자체예산으로 참가하였다.

## 조사단의 구성을 보면

서울대학, 경희대학, 숭실대학, 단국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등이고 국가기관으로서 5국립박물관과 문화재관리국이 참가하였는데 유적지역은 남북한강유역의 선사유적에서부터 역사유적까지 총 망라하였는데 적은 예산으로서 화목하게 또 성과있게 발굴하여 그 유명한 소양강 팔당수몰지구 유적발굴조사 보고서를 내었다.

그후 1974년 2월부터 5월까지 현재의 창원 외동 소재 성산패총 발굴을 할 때 발굴 당시는 마산 외동 성산패총으로 이름지어 졌으나 현재는 창원시 외동 성산패총으로 오직 유일하게 사적지 공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발굴은 1974년 2월부터 3월 10일 까지 발굴하면서 발굴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창원 공업단지 현지시찰 과정에 경주 천마총발굴시찰 이후 두 번째로 국가원수가 직접 이곳을 방문하여 유적지 공원으로 보존할 것을 지시한 곳이기도 한 유명한 곳이다. 또 당시 김정기연구실장이 진해 대통령 별장으로 초대되어 발굴에 수고한다고 대접받았던 일도 있다.

발굴단은 본인을 중심으로 한 제1반과 당시 국립박물관 고고연구실장이었던 한병삼관장을 책임자로 한 제2반 그리고 전남대 교수를 지낸 최몽룡씨를 중심한 제3반이 동구, 서남구, 북구 및 성곽 등을 중심하여 발굴한 곳이다. 성산패총의 성격은 기원전 3세기까지 올라가는 유적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계속 유존되어 오던 유적이며, 토기는 김해식 토기를 비롯하여 골각기 등과 성곽의 축조연대는 통일신라시대로 보이는 성곽들이고 개원통보 등 주화가 출토되어 원삼국시대 문화규명에 귀중한 자료를 제정하였고 더욱 나아가 삼한시대의 변한과 가야시대문화 규명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유적이었는데 있다.

국립박물관, 전남대학, 문화재연구소, 부산대학 등이 참가하여 그 넓은 지역의 패총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발굴작업을 마쳤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

또 성산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토건 회사들의 토취장소가 없어져 저의 발굴단에게 테러행위에 가까운 협박에 밤새 숙소주위를 증장비로 돌면서 잠을 못자게 위협하던 일, 그리고 대통령이 온다고 하루아침에 조사단장이 단원으로 강등되고 실장이 단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1972년 10월부터 1974년 11월까지 경주남산일대의 불적과 지표조사를 행했던 일은 지금도 경주에 가면 기억이 나고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조사사업이었다.

아침 6시에 출발하여 옥정곡 계곡을 비롯해 마석산 백운대까지의 수심 곳에 달하는 계곡과 골짜기를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 탁본, 실측등을 행하였는데 당시 참가하였던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나 힘들었는지 다시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이미 고인이 되었으나 이 때 안내하여 주던 고 최남주 노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1975년 8월부터 9월까지 영산강 수계의 담양댐, 광주댐, 장성댐 수몰지구를 역시 전남도청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자고 전남대 최몽룡 교수와 국립박물관과 문화재 연구소 3개 팀이 종합발굴단으로 참가하여 국립박물관과 연구소는 장성댐지구를 담당하였는데 이 발굴에서도 전남도청의 예산사용이 잘못되어 변상판정을 받게 돼 당시 문화계장 김옥현(현 광양시장)씨가 상경하여 난처한 입장을 설명할 때에 성산패총과 같이 본인과 조유전씨는 원고료 60만원 정도를 되돌려 준 적도 있어 조유전씨와 들어서 얼굴을 마주보며

어이없이 웃던 일도 생각한다.

5) 1961년 문화재관리국 발족 당시 문교부 사회교육과 문화보존계에 가서 문화재에 관계되는 서류를 인계 받는데 4톤 트럭으로 하나 가득 되며 본인의 업무에만도 지정신청 문화재 300여건, 지정문화재 대장정리 및 관계서류 500여건,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서류철, 국보도록 발간용 사진과 슬라이드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미결서류가 산적해 있는 것을 받아왔고 또, 1962년 1월에 공포되는 문화재보호법 전문 94조를 다듬고 손질하는데 꼬박 4개월이 걸렸으며, 이 4개월 중 2개월은 사무실 책상 위에서 잠자다시피 하며 미결서류의 법조문 정리를 마쳤었으며 드디어 1962년 1월에 우리역사상 문화재보호법을 공포하여 특별법으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법제처의 법제관들에게 문화재에 관계되는 여러 낱말과 술어를 설명하느라 대한한 자사전, 국어사전, 고고학사전 등을 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던 생각이 난다. 또 법에 따라 문화재위원을 위촉하는데 당시의 문화재위원의 위원장은 김상기 박사였고, 부위원장은 IOC위원이었던 이상백박사와 국립박물관장이었던 김재원 박사로 생각된다. 당시 1분과위원은 김상기, 김두정, 김재원, 이상백, 이홍직, 황수영, 김원룡 박사였으나 위원장은 이홍직 박사가 하였다. 역대 당대의 석학들이며,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은 황수영 박사 한분 뿐이다.

지금은 전문위원을 서로 하겠다고 교체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 같으나 이때는 우리들이 한분한분 찾아다니며 음식대접까지 하며 제발 전문위원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던 요순시대 같은 때이다.

지금의 서울 시청 앞 분수대자리는 당시는 시민들이 쉬고 가는 공원이었는데 현재의 프라자 호텔 뒷편은 화교음식촌 들이었다. 그 곳에서 빼갈과 오향육 등을 사들고와 공원에서 대접하면서 전문위원을 수락해 달라고 부탁드리던 때가 엇그제 같다.

6)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벌어진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세계문화재전시회에 한국의 고려자기 30여점이 출품되도록 되어있어 서반아어 한 마디도 못하는 본인 혼자서 전시 책임자로 참가하여 고생하던 일이 생각한다.

이때 본인은 콜롬보 계획에 따라 토론토박물관으로 1년 6개월 유학가게 되었는데 올림픽 문화재 전시행사에 하필 본인보고 가라고 하여 그 계획이 취소되고 어려운 고생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 때에 캐나다로 갔으면 지금 『회고와 전망』이라는 글도 못 썼을 것이다.

또 5.18이후 고직사회는 정풍바람이 불었는데 밤 11시 30분에 우리 부처의 S과장이라는 자가 집으로 전화하여 B라는 사무관에 대한 비리의 자료를 자기한테 제보하여 주변 본인은 살아남는다고 회유하며 협박하던 일, 그러나 S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얼마 안 있어 의복을 벗고 나가는 것을 볼 때 사람팔자 알 수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7)1993년 늦은 봄에 세간에는 『주간조선』에 연재된 유적발굴에 대한 비리관계가 알려지게 되고 발굴5적이니 하며 여론이 분분할 때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회에서 여론광장을 열어 유적발굴에 대한 성토와 해명을 요구할 때 본인은 문화재관리국에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이 여론재판에 참가하여 일일이 해명하고 돌아올 때의 허전함과 쓸쓸함 그리고 주위에서 그 여론재판에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던 정직한 내 직원들 생각이 지금도 곱잡게 여겨진다. 왜 일은 다른 사람들이 저질렀는데 본인이 이일에 나서야 하느냐는 충고도 있었으나 지금 생각하면 잘 했다고 생각된다.

1976년도에 시작되어 1983년 11월까지 이어진 장기간의 신안해저 유물발굴에서는 여러 가지 세계적 특징을 갖게 되었는데 그 시기는 대략 14세기경인 고려시대로 학술적 결론에 도달했고, 당시의 무역관계가 관이 주도한 무역보다도 사무역이 성행하였다는 것과 중국의 원양 항해선을 거의 완벽하게 인양할 수 있어 14세기 조선 방법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군과 합동으로 해양 고고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해저발굴을 연구소의 관계관들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또 보존과학 분야에서는 금속기류, 도자기류, 목칠공예류, 선체편 등에 대하여 정확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니 동시에 장점인 것이다.

또한 이 발굴에서는 한 종류의 유물만 인양된 것이 아니라 도자류, 동전, 자단목, 금속기류, 석제류 등이 인양되었는데 이들 모든 것이 궁중유물이 아닌 무역품이라는데 또 특징이 있다.

도자류로 용천요, 경덕진요, 균요, 정요, 건요, 자주요, 길주요 등 중국의 남북방 중요도요지에서 구워낸 도자기류 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것이며 세계에서 무역자기를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자류 10,063점, 백자류 4,962점, 흑유류 397점, 잡유류 2,050점, 백탁류 183점, 금속류 668점, 석제류 33점, 기타 536점 총합계 18,892점. 동전 28톤, 자단목 1,012본, 선체편 총 438편 등이 인양정리돼 한일고대문화전에도 신안유물로서 해외전시되기도 하였다.

1976년 10월부터 1983년 11월까지 8년간 행한 신안해저유물 발굴에서 겪었던 일은 지금도 생활의 교훈이 되고 신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8년간 발굴에서 그 기간은 가장 더운 삼복 더위에 행하면서도 단원들 전체가 한 사람도 사고 없이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각자의 조심도 있겠으나 신의가호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새삼스럽게 하늘과 신에 감사드린다.

이 기간 중에 해군의 해난구조대의 장병들과 дай버들의 협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게 느껴진다. 그러나 한편 이들에게 현장 발굴관계 간부들은 시달림도 많이 받았다. 특히 본인은 발굴부장으로서는 해난구조대의 사령관인 최대령과 그리고 각 함장들과 작업 때문에 무척이나 많이 싸운 것이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다. 또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문화재2과 정재훈과장(현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무국장)의 인간성과 그 부지런함은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다. 정과장은 그 고단한 작업 중에도 문학적 소질이 있어 매일같이 수필 형식의 일기체로 기록을 남기는데 가끔 그 문장을 읽어줄 때는 여러 사람들이 폭소를 자아내게 하여 피로를 풀기도 하였다.

또 후임자로 온 백동호 과장(감사관 역임)은 착실한 원불교신자인데 탄허스님이 쓴 『부처님이 계셨더라면』이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희망찬 이야기를 옛날이야기 같이 하여줄 때 즐리면서도 그 얘기를 경청하던 일이 생각난다.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이 있으나 지면상 생략하겠고 또 신안 해저유물 발굴조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여러번 일본에 자료수집 차 가게되었고 또, 북한 문화재 담당책임자로도, 북한의 여러 문헌과, 슬라이드, 문화재관리현황, 문화재실태 등의 자료수집 차 일본을 가게 되었었다.

그런데, 일본학자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우리 국내의 인사관계 정보나 개개인에 관한 정보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것을 느꼈고, 이에 대해 물어보면 전부 우리 쪽 사람들의 가벼운 입버릇 때문에 그네들은 앞서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그러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본사람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자들이 국내에서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일본에 가서 떠들 어대고 떠벌이고 다니는 모양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으며 그들은 정신적으로 이미 식민지화 되어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8)끝으로 본인이 공직생활 35년을 하는 동안 기쁘고 재미있었던 일도 있고 섭섭하고 슬펐던 일도 있다.

## 2. 전 망

끝으로 문화재연구소의 전망은 35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왔고 인원적인 면이나 업무적인 면에서도 가히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유적발굴에서는 무령왕릉을 비롯해 천마총, 98호 고분, 안압지, 황룡사지, 분황사지, 미륵사지, 궁남지, 성산패총, 그리고 각 지역의 수몰지구 유적발굴 등 역사에 남는 중요유적들을 발굴하여 보고서 발간하였는데 이 결과는 인재양성에 교본이 되었고 또 유적발굴의 교과서와 같은 규범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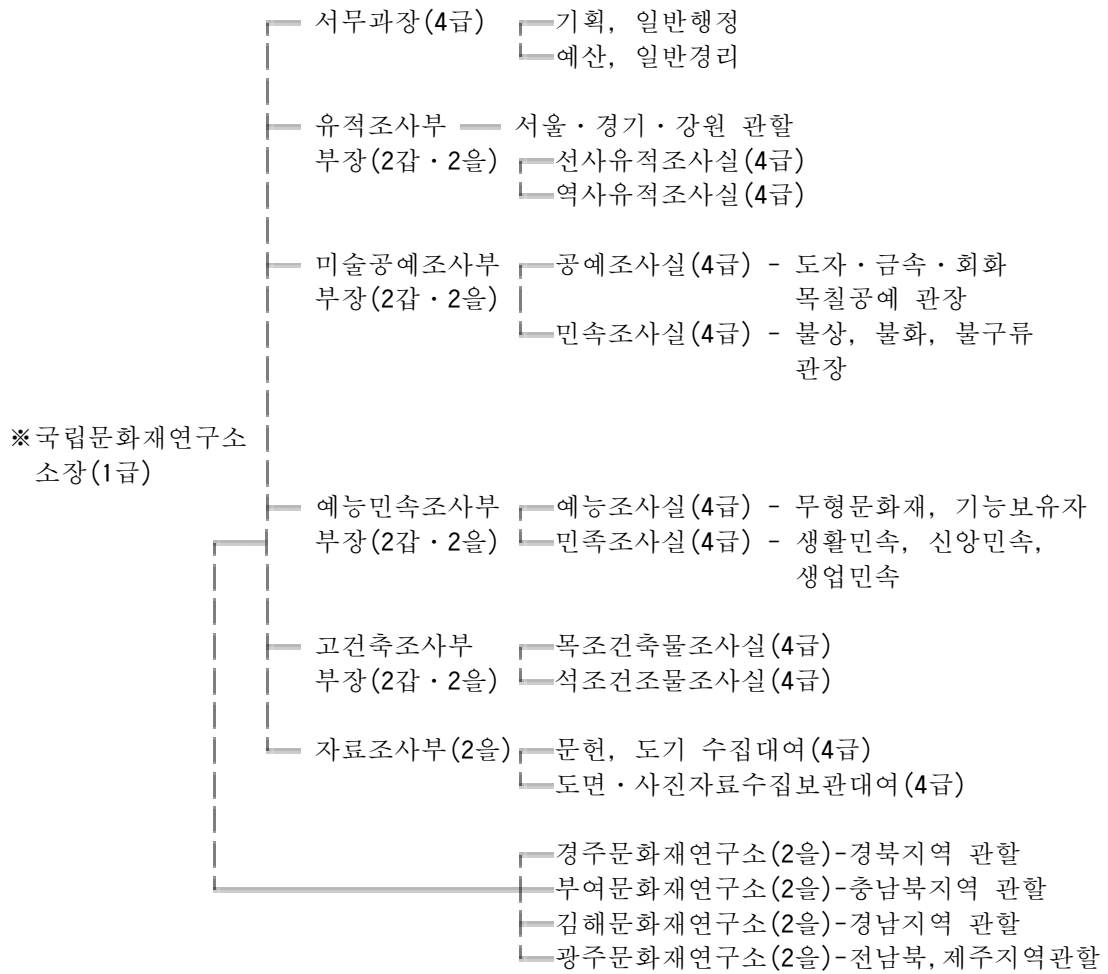
그러나 아쉬운 것은 발굴이란 또 조사란 기능적인 면에서는 발전하였는데 현장에서의 강의, 지도 그리고 사무실에서의 종합 평가 등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학연, 지연 등을 중심해서 편중되게 무리지어 양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균등하게 인재를 길러야 된다고 본다.

문화재 연구소 자체는 먼 앞을 내다볼 때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가 아니라 국립문화재연구소로써 관리국 소관에서 벗어나 반드시 독립되어야 연구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전국 문화재연구의 센터가 되고 요람이 된다고 본다. 또한 국립 문화재 연구소로 독립할 때는 현재의 보존과학연구실을 독립시켜 국립보존과학연구소로 독립시킬 때 비로소 연구와 보존 기능이 형평을 이루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학예직은 그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전공한 사람이 근무하여야 되는데 현재 같이 비전공자들이 자리를 차지해 후학들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과감히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불란서 등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시켜 외국의 방법론과 기술을 받아들여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장차 희망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로 독립할 때의 기구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될 때 가장 이상적이 기구가 되지 않을까 한다.



국립보존과학연구소가 별도로 독립되어야 하겠다.

